

무대 위에서 영혼을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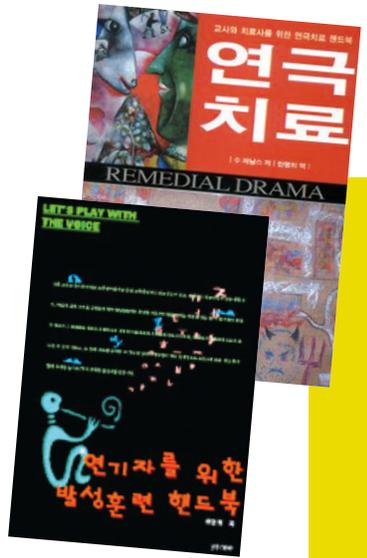
이효원 | 순천향대 강사



종합 예술인 연극을 통해 치료를 행하는 연극치료사.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전문성과 함께 큰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연극치료사라는 이름이 갖는 멋스러움이나 어떤 권위 혹은 경제적인 이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치료 작업은 분명히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함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극치료사에게는 자기 부수기 훈련이 필요하다.

한 명희 씨는 『한국 무속의례의 연극치료적 성격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통해 한국적인 연극치료의 형태를 제안한 바 있고, 서부시립정신병원, 청소년대화의 광장, 안양소년원 등에서 심리극에 참여하였으며 별자리 예술치료 센터에서 연극치료 세션을 진행했다.

극단 미추에 소속된 직업배우이기도 한 그녀는 2002년 영국 허드포쉬어 대학에서 연극치료학 실기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 영국과 국내를 오가며 연극치료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극치료사인 그녀의 경험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연극치료사'라는 직업을 조명하고자 한다.



연극치료사라는 직업은

이효원(다음부터는 이) : '연극치료'라는 말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있을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 연극치료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명희(다음부터는 한) : 친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놀면서 치료하는 거라고 말해요. (웃음) 연극치료는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심리치료가 언어를 위주로 한다면 예술치료는 예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연극치료는 연극이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예술 장르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치료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내담자군에 적용될 수 있기도 하지요.

이 : 한명희 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연극치료를 시작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연극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 전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어요. 당시에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맹인들의 자녀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었죠. 어느 날 헤어지기 싫어 매달리는 아이들을 업고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일명 별집이라 불리는 어두운 단칸방에 가득 널린 술병, 말라붙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찬장……. 그 일을 계기로 연극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독일에서 잠시 공부할 때 음악치료를 알게 되었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용기백배해서 치료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일도 있었죠. (웃음) 그 뒤에 우연한 기회에 영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연극치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연극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만 잔뜩 싸들고 돌아왔죠.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연극치료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일단은 연극치료의 존재를 내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기회만 있으면 글을 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이코드라마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수 제닝스, 『연극치료』, 한명희 역, 학지사, 2002

한명희, 『연기자를 위한 발성훈련 연습법』, 예니, 2004

왼쪽 페이지
2003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공연한 <코코코인>이라는 연극 출연 모습. 이 공연은 기억과 감각이라는 주제를 다룬 연극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도 기억과 얽혀있는 감각이 남아 우리를 지배함을 드러내고 있다.

연극치료사가 되기 위하여

이 : 그 이후에 영국 허드포쉬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연극치료사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과정을 겪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한 :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심리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자기 부수기 혹은 자기 비우기 작업이에요. 그건 자기라고 믿고 있던 것, 자기가 갖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깨고 부수어 결국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고 풀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계속해서 겪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작업이 너무나 고되고 아파서 이거 하기 전에는 행복했는데 남 좋은 일 하겠다고 내가 죽을 일이나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넌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며 힘들더라도 작업을 놓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아무튼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훈련 내용으로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내담자가 되어 개인 치료나 집단 치료를 72시간 이상 받아야 하구요. 이론적으로는 심리학, 인류학, 교육학, 정신의학 등 관련 분야를 두루 공부하는데 그중에서 인류학에 큰 비중을 두죠.

이 : 자기 비우기가 얼마나 혹독하고 고된 작업일지 짐작만으로도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통과해 결국 연극치료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내담자를 만나 오셨는데 그 동안의 작업에서 가장 기쁘고 슬픈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 기쁜 순간은 너무 많았지만 항상 처음이 기억에 많이 남는가 봅니다. 19살된 자폐증 환자와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no'가 유일한 말이었고 자기 얼굴을 때리는 버릇이 있어서 그걸 못하게 막으면 마구 물어대곤 했어요. 그런데 나와 작업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자폐증상이 없어졌죠. 그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난폭한 내담자를 만났을 때예요. 몇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포기해야 했죠. 그때 혼자서 아주 많이 울었어요.

이 :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한명희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무엇인가요?

한 : 좋았던 작업의 기억이 힘이 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작업 경험이 쌓이면서 매 세션의 좋고 나쁨에 그리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치료사로서의 사명



치료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처입은 치료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상처의 경험을
항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감, 우습게 말해 내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 같은 걸 가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일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그 몫
을 감당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한 : 책임감이죠. 작업을 하다보면 어
느 순간 환자와 내가 마치 어머니와 아

이처럼 영혼이 통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순간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관객과 함께 공
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느낄 때는 세상에 더 필요한 게 없을 만
큼 충만해져요.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매복해 있는지 몰
라요. 그걸 모두 책임감이란 말로 표현한 거죠. 우리는 작업에서 매 순간 위험에 직면하
는데 거기에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만큼 느끼고 알게 되지만 또 잘못 빼앗하면
크게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늘 망설이고 주저하게 되죠. 더구나 나 혼자 아니라 자
식이나 다름없는 내담자를 다치지 않게 안고 함께 가야하니까 위험에 직면하여 도전하
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이 : 쉽지 않은 그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한 : 저야 당연히 수 제닝스죠. 직접 배운 적이 없지만 여기서 혼자 작업할 때나 영국에
있을 때나 여러 모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작업을 하면서 난관을 만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곤 했죠. 영국에서는 수퍼바이징을 할 때 돈
을 받는 게 관례인데, 연극치료의 창시자이자 연극치료 분야의 대모로 불리는 그녀가
연로한데다 지병으로 앓는 상황에서도 내 청을 거절하지 않고 스스로없이 도와준다는
게 너무나 고맙지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만난 필 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분은 나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힘이 되
어준 멘토같은 분이예요.

이 : 연극치료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작업의 방향은 어떤 건
가요?

한 : 치료적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적 공연은 그 동안에도 있어 왔죠.
연극치료사들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나는 역할 연기는 그다지 즐
겨 사용하지 않고 투사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죠. 요즘은 그 안에도 특히 다이나믹
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무대에 누군가 있어요. 그 빈 공간에서 움직임, 빛, 소리 등의
흔들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흔들림은 무대에 있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에게 모두 영향을 줍니다. 내 관심사는 그 흔들림, 공연을 통해 연극을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모두 치료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전적인

왼쪽 페이지
스리랑카 쓰나미 희생자
연극치료 캠프의
기록(2005년 2월)

공연 방식을 사용하고요. 배우들이 자기 인생에서 극복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역할 연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그렇게 공연을 만들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가장 아팠던 기억이 튀어나오게 되고 또 그 경험을 밖에 나와서 보게 되고, 그 과정이 가장 창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술적 승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극치료가 갖춰야 할 소양

이 : 그런 아름다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연극치료사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연극치료가 갖춰야 할 소양이나 자세와 관련해서 도움말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 치료사가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처입은 치료사'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상처의 경험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내담자들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치료사다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제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되, 그 일을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치료' 라는 말을 붙일

저에게 연극치료는 일종의 업입니다. 연극치료사라는 일을 하면서 천국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지옥에 머무는 순간도 있고 그 둘을 오가는 게 참 힘들죠. 언제든 이걸 하지 않아도 좋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훌쩍 떠나게 될 거예요.



2003년 3월 말에 '치료적인 공연'을 목표로 한 첫 연구 프로젝트의 공연 무대. 관객들이 천장에 자신의 글귀들을 붙이고 이 글들이 마치 곳판의 지방처럼 유분이 조망에 선명하게 떠오르던, 그리고 공연이 마무리 될 무렵, 배우들이 이 글을 읽고, 꽃을 모래에 심던,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과 교감하던 관객의 모습. 모래를 가득 메운 하얀 꽃들, 천장을 가득 메운 비람의 글들…….

오른쪽 페이지
스리랑카 쓰나미 희생자
연극치료 캠프의 기록(2005년
2월)



때는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연극치료사라는 이름이 갖는 멋스러움이나 어떤 권위 혹은 경제적인 이득과 상관없는 신중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치료하는 거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치료 작업은 분명히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함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한다' 는 식으로 해서 절대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복잡한 위계 질서가 사람들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사의 동등권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한 가지는 치료사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내담자를 만나든 그에게 감정이입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게 치료사의 역할인데, 성별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견해나 종교에 따라 좋고 싫음과 옳고 그

름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자기 부수기 훈련일 거예요. 그 밖에 기술적인 측면은 내담자에게 성심을 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되고 습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론에 대한 집착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연극치료 작업은 몇 가지 방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내담자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절차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내담자가 생기면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께 작업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전해야 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록을 해야 하고, 작업을 하면서 기록하는 건 물론이고, 전체 과정이 끝나고 또 기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도 한참 후에 잘하고 있나를 확인하려고 해야 하죠. 또 같은 병명이라 해도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하구요. 치료사가 되기 위해선 내담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 사랑하는 만큼의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 : 저에게 연극치료는 일종의 업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천국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지옥에 머무는 순간도 있고 그 둘을 오가는 게 참 힘들죠. 언젠든 이걸 하지 않아도 좋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훌연히 떠나게 될 거예요. 연극치료사가 되려는 분들은 그게 피할 도리없는 팔자라고 느껴지지 않는 한, 세상엔 굳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웃음) 🌈